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허오영숙 / 주소 (03112)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2층)
전화 02-3672-8988 / 메일 wmigrant@wmigrant.org / 홈페이지 www.wmigrant.org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이주·여성 인권단체
발신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제목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일자	2023. 10. 18. (총 8매)
주관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은유 주소 (52686)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 39 (3층) 전화 055-741-6355 / 팩스 055-746-6355 메일 gnw6355@hanmail.net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 미수 사건 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18일 오후 14시
- 장소 : 진주시청 브리핑실
- 공동주최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숙(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개요 : 박정숙(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팀장) •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경민(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임향금(이주여성 대표)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피해자 가족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은유(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질의 응답

※ 문의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055-741-6355)

< 사건 개요 >

■ 인적사항

- 피해자 : A(여, 1984년, 베트남 국적)
- 가해자 : 이00(남, 1968년, 한국 국적)

■ 사건 내용

- 2021년 4월 피해자 A씨 한국 입국
- 2023년 10월 3일 진주시 자택에서 남편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발생
112에 신고
-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뇌사)의 위독한 상태
- 가해자는 현재 구속 중
- A씨의 베트남 가족 한국 입국 후 진주시에 체류중
- A씨는 현재 위중한 상태

< 기자회견문 >

지난 2023년 10월 3일(화) 경남 진주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살해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응급실에 입원중이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가해자인 한국인 남편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살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자살하고 나면 베트남 출신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현실이 못마땅하여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고 자백하였다고 한다. 막상 자신의 공격으로 아내가 의식이 없자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재 남편은 구속 상태이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2007년 후인마이라는 베트남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입국한지 2개월 만에 남편에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것을 시작으로 이주여성이 겪는 극단적인 폭력은 계속 터져 나왔다. 경남지역에서도 2014년, 2018년 양산에서 한국인 남편에 의해 이주여성의 살해당했다.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현상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살인 사건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살해 사건 중에서도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 왔다.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저개발국 출신 이주여성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의 극단에 아내 살해와 가해자 자살이 있다. 심지어 자신의 자살은 시도조차 하지 않음이 현실에서 이주여성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는가!

후인마이 사건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지속되는 이주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무엇이 변화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여성들은 안전하리라 믿었던 가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두 사람을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모든 과제의 완성인 것처럼 사고하는 무모한 정책들이 파국을 만들어 냈다.

정부와 지자체는 존엄한 존재로 이주여성이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주여성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23.10.18.

• **공동주최**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연명단체**

거창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고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가정상담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사)거제가정상담센터, 사)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남권역,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진주참여연대,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여성농민회,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진주YWCA ,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가정상담센터,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 합천가정상담센터 (가나다 순)

[발언문 1]

김경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지난 10월 3일 아름다운 도시, 여성친화도시 진주에서 아내 살해를 시도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극단적인 고통 앞에 말과 글의 무용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현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상황이 그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있고 2021년 한 해 기준 다문화 혼인은 14,000여 건에 이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직·간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은 응답자의 42%가 넘습니다.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통계에 반영될 수 없는 분들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든 폭력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을 국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인권에 대한 다각적이고 윤리적인 고민이 부족했고 이는 우리 사회에 고착된 가부장적인 문화 및 사회적 편견과 맞물려 이주여성들의 폭력 피해를 가중시켜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 변화와 지원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2020년 경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번 진주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아내 살해 시도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집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을 모두 자신만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다치고 죽어야 합니까.

배우자가 저지르는 지속적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해, 잘못된 상호 관계를 바로잡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차별과 통제와 폭력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촉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 오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남편입니다. 출신국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느낌입니다.

가정은 나를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혹 내가 이 친구였다면 지금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이겠지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누구도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웃으로 바라봐주세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러 온 것입니다. 더 이상 폭력은 안됩니다.

어떤 폭력도 절대 용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주여성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김혜정입니다.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미수사건 외에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이주여성이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주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주여성을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이주여성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9,814건이었으며 2022년에는 10,778건에 이릅니다. 가정폭력상담이 964건이나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주여성들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은 이주여성에게 크나큰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한국사회가 이주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언제든지 폭력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이주여성은 체류와 귀화과정에서 배우자의 조력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는 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입더라도 불안한 체류상태로 인해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한국인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주여성은 가정에서 통제를 통해 고립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신체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소가 2019년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전국에 9곳에 불과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기에 놓인 이주여성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이상 이런 참담한 이주여성 폭력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4]

피해자 가족 발언

(베트남어 원문)

Xin cảm ơn tất cả vì đã đến đây.

Tôi thấy bất ngờ và thương xót khi nghe tin tức này.

Con gái tôi đang nằm trong bệnh viện, và tôi không biết phải làm gì tiếp theo.

Với cương vị một người cha tôi rất đau lòng con gái tôi là người trầm tính ngoan và học giỏi, tôi những tưởng con đang sống HP ở HQ

Rất nhiều người VN sang bên này sau kết hôn nên tôi hy vọng mọi người có thể giúp đỡ họ có thể thích nghi tốt với cuộc sống

(한국어 번역)

여기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랐고 슬펐습니다.

내 딸이 병원에 있는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제 딸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이곳으로 많이 오는데,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